

20. 분재 전시실(자시키카자리)

오미야 분재 미술관에서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3 종류의 다다미방에 분재가 어떻게 전시되는지 보여주는 세계 유일의 전문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런 전시 스타일 및 관련 장식 양식은 모두 ‘자시키카자리’로 알려져 있습니다. 중국 서예의 족자에서 영감을 받아 무로마치 시대(1336 년~1573 년)에 양식화되었습니다. 중국식 차 문화가 인기를 끌었던 에도 시대(1603 년~1868 년) 말기까지 분재는 다양한 방의 양식에 접목되었습니다. 3 개의 자시키카자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미술관에 재현되어 있으며, 관람객은 직접 분재가 있는 방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다다미방에 앉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.

분재는 기존의 실내장식 양식에 나중에 추가되었지만 머지않아 실내장식 양식의 중심이 되어 미적인 누름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. 분재가 있기에 족자나 산처럼 생긴 수석 등 도코노마에 배치된 다양한 물건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. 3 개의 자시키카자리 방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, 일본식 방으로 불리는 일본의 전통적인 방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방을 재현한 ‘교노마(行の間)’, 주로 다실로 고안된 ‘쇼노마(草の間)’, 가장 격식 높으며 신분이 높은 손님을 위한 ‘신노마(真の間)’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컬렉션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전시되는 분재도 매주 바뀝니다.